

Heart to Heart talk from Academic Dean (with some rules for follow)

사랑하는 복음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메일과 함께 지금 이파일을 포함하여 6 개의 첨부파일을 보냅니다.

1. Heart to Heart 편지
2.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3. 2011-2012 년 학사일정
4. M.Div.과목 체크리스트 (서식 1-151)
5. M.A.과목 체크리스트 (서식 1-152)
6. B.A. 과목 체크리스트 (서식 1-153)

보내는 첨부파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약 4 개월동안의 학사행정에 대한 일과 앞으로 학교가 나갈 방향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지난 2 월에 부족한 제가 갑작스럽게 Academic Dean 일을 맡게 되면서 여러가지 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드는 일, 5 월말에 만기가 되는 학교 카탈록을 만드는 작업(사실 새카탈록을 만드는 준비 작업은 1 년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허가를 받는 Application 을 준비하여 보내는 일, TRACS 의 정회원이 되기위한 Self-Study 와 그외의 서류 준비 작업, 학교의 교수진, 행정진, 스태프의 공정한 사역과 근무을 위하여 체계를 세우는 일, 실력있는 교수들과 스태프 멤버들을 recruit 하는 일, 학교의 졸업시즌을 맞아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졸업사정회준비, 졸업예정자들 인터뷰, 졸업예정자들의 각 사정에 따른 공정한 결정, 졸업식준비 등등), 그리고 원래 제가 하고 있었던 원거리교육의 on-line program 의 technical 하고 실질적으 면을 계속하여실험하고 Moodle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 인터넷 무들사이트에 올려놓는일 등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앞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나가야 할 방향을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 등이었습니다. 물론 이일들은 교수님들과 스태프들의 많은 협력과 수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편지에 언급될 내용들은 한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또한 한 사람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복음대학교를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고자 전복음대학교의 이사진, 교수진, 스태프가 지향하는 방향이므로 재학생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1 년 가을학기부터 새커리큘럼이 시작됩니다.

A. 새 커리큘럼 (2011 년 가을학기부터 시작)

1. M.Div. 과정
 - a. 96 학점 이수
 - b. 성경시험 패스
 - c.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시험 패스
 - d. 700 시간 Field Education
2. M.A.R. 과정
 - a. 60 학점 이수
 - b. 성경시험 패스
3. B.A. 과정
 - a. 129 학점 이수

새 커리큘럼의 필요한 이수 과목들을 담은 서식들을 보냅니다. M.Div.과정은 서식 1-151, M.A.과정은 서식 1-152, B.A. 과정은 서식 1-153 입니다. 매 학기등록할 때마다 이 서식을 보고 체크를 하면서 3년, 2년, 4년 과정을 질서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가을학기부터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 필수과목을 다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 가을학기 강의스케줄을 보냅니다. 편리상 오전 10시와 오후 1시 40분에 시작하는 클래스들을 주간반이라고 하였고, 오후 5시와 8시 20분에 시작하는 클래스들을 야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클래스는 필수과목이고, 각 요일(월, 화, 목.)마다 학부와 대학원 클래스들이 분반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번 가을학기부터 모든 클래스를 분반을 못합니다. 과목사이에 점선으로 표시된 클래스는 합반을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나 빠르면 1-2년 아니면 2-3년내에 모든 클래스를 B.A.와 M.A. & M.Div. 과목으로 분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반과 야간반은 각각 독립된 3년(M.Div.), 4년(B.A.)의 매스터 스케줄에 의하여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주간반만 수강해서 3년, 2년, 4년에 졸업할 수 있고, 야간반만 수강해도 3년, 2년, 4년이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클래스는 없고 주간반, 야간반 각각 필수과목들이 다 오픈됩니다. 그러므로 2011년 가을학기부터는 학교에서 필수 과목을 오픈하지 않아서 필수과목을 하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주간반(야간반)을 하면서 야간(주간) 클래스를 더 수강하면 더 빨리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더 나은 신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복음대학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된 법인체제로서 교육법을 따라야 합니다.
2. 복음대학교는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기관인 TRACS 의 멤버로서 TRACS 에 제출하고 보고된 학교 카탈록의 법과 원칙을 따라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3. 복음대학교 학생들을 균형잡힌 신학교육으로 훈련하여서 최고의 신학교육을 받고 준비된 크리스천 사역자, 크리스천 봉사자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4. 복음대학교 학생들을 최고의 개혁신학자들로부터 수업을 받아 바르고 확고한 개혁신학으로 다져진 교회의 리더, 혹은 사회의 리더들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11년 가을 학기 이전에 입학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학사 행정을 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6월 4일을 기하여 복음대학교의 학생의 100%가 2011년 가을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2011년 가을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한 날짜의 카탈록(대개 2008-2011년 카탈록에 해당할 것임)을 따를 것입니다. 제가 학교의 지난 일은 최대한대로 언급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하나의 문제는 학교의 카탈록이나 원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카탈록이 있었는데 그대로 실행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그랬게 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으나 ...). 그래서 새커리큘럼은 이런 여건을 온힘을 동원하여 만들어서 원칙에 의해 교육을 하여서 주, 연방정부의 법을 따르고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균형된 신학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 가을학기 이전에 입학한, 즉 지금 재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1. M.Div. 과정 졸업조건

- a. 105 학점 이수 (전과 같음)
- b. Small group study 는 없어짐 (이것은 사실 카탈록에 나와있지 않음)
- c. 성경시험 패스 (전과 같음)
- d.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시험 패스 (전과 같음)
- e. 700 시간 Field Education (전과 같음)

변경은 된 것은 오직 small group study 가 없어지고 그만큼 선택과목을 택하면 됩니다.

2. M.A. 과정 졸업조건

- a. 60 학점 이수 (전과 같음)
- b. 성경시험이 없어짐 (지금까지 M.A. 과정 졸업생들이 성경시험을 안 본 것은 카탈록에 없어서가 아니라 카탈록에 있는데도 (p. 54) 그대로 실행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2011 년 가을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성경시험을 보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시험을 공식적으로 빼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대학원과정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졸업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시험이 없어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고 성경시험이 공식적으로 없어짐.

3. B.A. 과정 졸업조건

- a. 129 학점 이수 (전과 같음)

변경된 것 하나도 없음.

그러므로 종합하여 말하자면 새커리큘럼이 시작된다고 하여서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인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며, 그러므로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을 위해서도 새 커리큘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학생들에게 오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금부터라도 균형잡힌 신학교육을 받아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2. 지금부터라도 균형잡힌 신학교육을 받아서 다른 신학대학교, 대학원의 졸업자들에 비교하여 열세의 자세로 사역을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예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 1. 필수과목이 오픈안 되어서 필수과목을 택할 수 없었으므로 그냥 졸업시켜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학교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 년 가을학기부터 더 이상은 학교 책임이 아닙니다. 물론 2011 년 가을학기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졸업할 때에 모든 필수과목을 다 요구할 수 없으나, 2011 년 가을학기부터 오픈되는 필수과목을 성실하게 수강하시면 졸업할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줄 압니다.)
- 2. 수강할 과목이 없어서 다른 학교에서 강의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Academic Dean 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필요한 과목이 오픈되므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복음대학교에 등록된 학생이면서 다른 학교에서

수강을 하는 것은 반드시 Academic Dean 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때는 그 학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편지 내용의 종합은 무엇입니까?

1. 복음대학교는 2011 년 가을학기부터 한단계 높아진 최고의 신학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2. 재학생들에게 오는 불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3. 신입생들이나 재학생들이나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으면 균형잡힌 신학교육을 받아서 준비된 크리스천 사역자,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대학교를 최고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만들고 싶고, 또한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일을 맡았습니다. 아마 이것이 복음대학교의 이사진, 교수님들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지난 21 년동안의 학교 경험을 통하여 볼때 복음대학교는 그렇게 될수 있는 포텐샬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이미 알려드린대로 8 월부터는 구약학의 이창배교수님이 조인합니다. 지금도 복음대학교 교수진은 한국 신학교 중에는 최고의 교수진을 가졌다고 자부하지만, 2011 년 가을 학기를 기하여 복음대학교 교수진은 더 나아진 최고의 교수진(정규교수, 시간 강사가 아님)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실력있는 학자들을 모셔서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신학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복음대학교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최고의 교수진에 의한 신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복음대학교로 인도를 받은 한분, 한분에게 그 이하의 신학교육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 더 고상한 학문은 없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삶보다 더 능력있는 삶은 없습니다. 칼빈이 신학을 강의하기 전에 기도하던 내용입니다. "May the Lord grant that we may engage in contemplating the mysteries of his heavenly wisdom with really increasing devotion, to his glory and to our edification. Amen."

그리스도의 은혜안에서,

6 월 4 일

조대준 목사